

빵빵한 여수, '빵지순례' 성지되다

옥수수빵·갓버터도나스·삼합빵·하멜등대빵·몽돌빵 등 인기몰이 지역 청년·여성 이색 아이디어... 지역 농특산물 활용 관광 상품화

여수 이순신 광장에 가면 평일에도 가게 앞에 줄을 서 빵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전남의 대표 해양관광도시인 여수에서 지역 특성을 가미한 다양한 빵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모양, 재료, 맛 모두 독특한 '특화 빵 5종상'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에 가면 꼭 먹여야 하는 빵으로 옥수수빵, 갓버터 도나스, 삼합빵, 하멜등대빵, 몽돌빵 등이 있다. 이들 빵의 공통점은 지역 청년과 여성이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것이다.

여수에는 옥수수, 돌산갓, 거문도속 등 대표 특산물이 있다. 그 중 옥수수를 활용한 빵 종류가 다양하다. 옥수수빵, 옥수수 치아바타, 옥수수 소금빵 등이 그 예다. 옥수수 모양의 옥수수빵을 만드는 코너는 전년 대비 310%, 옥수수 치아바타와 쿠키를 만드는 옥수수 치아바타는 66% 상승한 약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수의 특산물 돌산갓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갓과 도넛의 이색적 조합으로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서울에도 분점

을 낸 갓버터도나스와 여수의 명물 삼합을 빵으로 만든 삼합당이다.

김진우 갓버터도나스 공동대표는 "수제 튀김 도넛 속에 다소 느끼할 수 있는 크립의 맛을 여수 돌산갓의 알싸함으로 잡아주는 단단단한 매력에 있는 디저트"라며 "하루 600박스 한정 판매하고 있지만 만들기가 무섭게 동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삼합빵'을 만드는 강나리 여수삼합당 대표는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인 여수삼합(갓김치·문어·돼지고기)은 혼자 오는 관광객이 먹기 힘들다"며 "삼합을 작게 다져 버거 빵 속에 넣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삼합빵은 여수 갓김치의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매력적이며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든든함이 특징이다.

여수 거문도의 해풍속을 활용한 빵도 있다. 보통 속을 활용한 후식은 떡을 떠올리기 쉽지만,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빵도 최근 출시했다. 딸기모찌(잡쌀떡) 판매로 유명세를 탔던 미미협동조합에서 여수의 거문도해풍속과 잡쌀을 이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여수밤바다가 보이는 낭만포차 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조형물 하멜등대 모양을 본



뜯 '하멜등대빵'이다. 또한 옥수수를 이용한 '하멜등대빵'도 있다.

김선옥 미미협동조합 대표는 "여수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쌀 등 우리 농산물을 100% 사용하고 있다"며 "여수를 대표하는 빵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개업한 슈블렌은 여수 거문도 속크림과 여수 옥수수크림이 들어가는 몽돌빵을 출시해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독특한 모양과 맛의 특화 빵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진 인증 욕구를 불러일으켜 짧은 시간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해 1인 가구 광주 34.5%·전남 35.3%

7년 연속 전국 평균 웃돌아... 전남 70세 이상 비중 전국 최다

지난해 지역에서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34.5%·전남 35.3%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두 지역은 7년 연속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중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61만6000가구 가운데 34.5%에 달하는 21만2000가구는 홀로 살았다. 전남은 77만7000가구 중 35.3%인 27만4000가구가 1인 가구였다.

지난해 광주 1인 가구는 전년보다 1만8000가구(9.5%)가 늘었고, 전남은 1만7000가구(6.8%)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3.0%·전남 3.8%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에는 2145만 가구 가운데 33.4% 비중인 717만 가구가 혼자 살았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홀로 사는 5가구 중 1가구는 20대였고, 전남에서는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30%대에 달했다.

광주 1인 가구의 21.4% 비중은 4만6000가구는 20대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20대 남자·여자 1인 가구가 각각 2만3000가구로, 각각 10.6%·10.8%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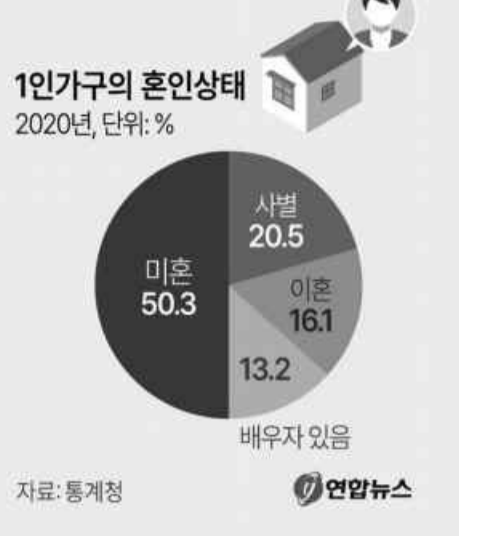
반면 전남 20대 1인 가구 비중은 11.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국 20대 1인 가구 비중(19.0%)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전남 20대 1인 가구는 3만3000가구에 불과하지만, 70세 이상 1인 가구는 8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32.4%인데, 전국 평균 비중(18.1%)을 크게 웃돌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가운데 절반(50.3%)은 2020년 기준으로 미혼이었다.

1인가구 추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결혼 자금 부족(30.8%)'을 꼽았다. 아예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12.3% 있었다.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1%로 절반을 밑돌았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1인 가구 비중은 44.3%로 전체 인구(43.2%)보다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36.9%) 역시 전체 인구(34.7%)보다 높았다.

1인 가구 가운데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7.7%로, 나머지 32.3%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6.3%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 '김대중 노벨평화상 22주년 기념식'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2주년 기념식이 8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다.

전남도가 후원하고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권노갑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국제·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을 주제로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말과 김성재 김대중 노벨상기념관 이사장의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기조 강연이 이어진다. 김대중의 평화정신과 국민통합,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류상영·배준은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2주년을 축하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3월 쯤

백경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정...고위험군시설 착용 의무 유지"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 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점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백 본부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

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싼,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9582-7400

급매물건 삽니다

경매직전 물건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m²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3605-8564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1차)

당 회사는 2022년 11월 29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주식회사 모노하우징
광주광역시 북구 연암로95번길 9-2, 202호 (양산동)
청산인 노연금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여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